

- 대한민국 어린이 존중 문화 만들기 -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

#아동권리 #책임이 #요린이 #순화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

본 사전은 101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어린이주간 캠페인으로, 아동권리침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 어린이 존중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사전은 실제 제출된 사연과 이를 토대로 마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5.1.~5.14. 기간 동안 제출된 사연이다.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이 나오기까지

아동 및 성인 사연 모집



아동권리보장원 제3기 아동위원 감수 진행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사전 제작

감수 참여 아동위원 (*가나다순 정렬)

권이준, 박현수, 윤동건, 이시윤, 이주혜, 정윤서, 정하린

• **0린이** (주린이, 부린이, 요린이, 헬린이 등) → **00초보자**

“나 요린이라 요리 못해”, “너 헬린이지?” **0린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야의 초보자나 막 시작한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로 ‘주린이(주식+어린이)’, ‘부린이(부동산+어린이)’, ‘요린이(요리+어린이)’, ‘헬린이(헬스+어린이)’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뒷부분을 따와 파생된 단어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사용되며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0린이’는 주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데 사용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초보자’이며 미성숙하고 어린 존재로 보는 편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입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드실 때, 아이들을 ‘아해놈’, ‘애녀석’, ‘어린애’ 등의 호칭으로 하대하던 시절에 젊은이, 늙은이처럼 어린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자 똑같이 ‘이’를 붙여 어린이가 된 것인데, 미숙한 사람을 일컬어 0린이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0린이에 대한 생각

① **헬린이 → 헬스 스타트** 박O은

17살쯤 헬스장을 처음 다닌지 얼마 안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기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구 사용법을 영상으로 찾아보며 여러 자세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성인 남성 무리가 “급식총이 무슨 헬스냐”, “헬린이가보다. 네가 좀 도와주고 와라”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속닥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괜히 속상하고 한 번 더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헬스장을 다시 가지 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헬스장 기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구는 제가 아동이라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든 성인이든 배우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② **요린이 → 요리 초보** 박O혁

‘요린이’가 차별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 받지 못하는 언어표현 같고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③ **0린이 → 00 초보** 정O린

‘요린이’는 어린이는 잘 못하고 모른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차별용어라고 생각합니다

④ 골린이 → 골프 초보 장0진

뉴스에서 골프를 막 시작한 사람을 '골린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다는 뜻으로 '골린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미숙하게 여겨 초보인 사람에게 '0린이'를 붙이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⑤ 정0영

어른들 중에도 아동 비하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린이', '부린이', '헬린이', '골린이'와 같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 아직 주린이네? 그렇게 경제 개념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애보다도 못하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주식을 알고는 있지만, 경제 상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을 호칭해 모두 '0린이' 라고 부르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행동 같습니다. 요즘 어른들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젊어 보이는 것이라 착각하고 쓰는 사례가 많아 보입니다. 어른이 먼저 이러한 단어와 줄임말의 사용을 줄여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단어 사용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아이들은 나쁜 말을 먼저 배우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든 언어발화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한 단어 교육의 시작이 중요하고 비하 단어 사용은 자신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체어보다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 단어 개발과 신조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아동인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 존중을 위해 0린이 대신 사용해야하는 용어(표현) _____

초보자, 입문자, 초심자, 스타터(Starter) 등

• **잼민이** → **초등학생, 어린이**

“잼민이 채팅방 참여 금지” **잼민이는 무슨 뜻일까요?**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게임 채팅, 인터넷 방송 등에서 어설픈 언행이나 행동으로 주변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쓰이는데, 현재는 어린이를 칭하는 표현으로 확장하여 사용됩니다.

초등학생을 의미하는 '초딩'에서 최근에는 '잼민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대신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잼민이는 한 게임 서비스에서 원래는 초등학생을 의미했으나, '초딩'의 의미와 같이 개념이 없거나 유치한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잼민이'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 내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점차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쾌한 초등학생을 '잼있다.'라는 의미를 붙여 '잼민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들어 단어의 의미가 퇴색되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개념이 없거나 어리숙한 표현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잼민이'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잼민이'는 실제 초등학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화가 진행 중인 어린아이에 빗대어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성인을 비방하기 위한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해당 표현은 한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씌울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잼민이에 대한 생각

① **잼민이 → 이름 부르기 또는 어린 친구** **이이윤**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피구를 하는데 어떤 형이 친구에게 '야! 넌 잼민이 보다 공을 못 던지네~'하며 웃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놀림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습니다. 형들보다 나이 말고는 특별히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잼민이'라고 놀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면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잼민이'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② **잼민이 → 동생아** **박이여**

유튜버 재민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 목소리로 방송을 하다가, 개념이 없는 민폐 어린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잼민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형들이 자기들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잼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린이 이들은 규칙과 여러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 '잼민이'라는 말보다는 '동생아'라고 순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③ **잼민이 → 초등학생** **정오린**

'잼민이'는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어린이 존중을 위해 잼민이 대신 사용해야하는 용어(표현)

이름 부르기, 어린 친구, 동생아, 초등학생, 어린이 등

• 노키즈존 → 사라져야 하는 문화

“노키즈존이라 아이는 출입이 어려워요.” 노키즈존은 무슨 뜻일까요?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노키즈존은 주로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다.”와 “아동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으며,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 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들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 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언론보도] 인권위 “노키즈 존” 식당 운영은 아동 차별 행위” 한겨레신문, 황금비 기자)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인권차별을 넘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일상에서 아동이 자신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며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출처: [언론보도] ‘아이는 안돼요’ 노키즈존... 전문가들 “어린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 조선일보, 송복규, 이유정 기자)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생각

1 홍0준

아빠 엄마랑 식당에 갔어요. 아빠 엄마는 초밥을 드시려 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우동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식당이 노키즈존이라 우리 가족은 입장을 거부당했어요. 그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의 외식을 망쳐서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노키즈존이라는 말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나이 때문에 차별을 한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곳도 아니고 제가 어려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위험하거나 어린이가 들어가면 안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제가 어리고 음식을 흘리고 목소리가 커서 불편 하다며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노키즈존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떠드는 게 금지인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저와 우리 부모님의 선택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때문에 거절 당하는 건 속상해요.

② 노키즈존 (No Kids Zone) → 웰컴 키즈존 (Welcome Kids Zone)..... 강요지 '어린이를 환영해요.'

동네 예쁜 카페가 생겨서 찾아갔는데 문 앞에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서 카페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유해한 공간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음식점, 카페와 같이 가족 및 부모가 함께 어린이를 동반하여 갈 수 있는 장소에 노키즈존이라고 제한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가 생활을 누릴 공간조차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제2조 비차별의 원칙에서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또는 부모와 함께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노키즈존을 명시해서 어린이들은 올 수 없다고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사라져야 하는 문화입니다. _____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로 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하는 용어이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상호 간의 존중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딩 → 초등학생, 어린이

“아~너 초딩이냐?!” 초딩은 무슨 뜻일까요?

‘초딩’은 1.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얹잡아 이르는 말, 2. 주로 인터넷상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3. 어리석고 유치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과 같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출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초등학교 학생의 줄임말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또 이와 같이 누군가를 얹잡아 이르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줄임말로, 어떤 일의 숙련도가 초급 정도의 저열한 수준임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됩니다. 유사한 의미의 말로 ‘찌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딩’이라는 말은 ‘초등, 중등, 고등’의 ‘~등(等)’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생은 ‘유딩’, 중학생은 ‘중딩’, 고등학생은 ‘고딩’, 대학생은 ‘대딩’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최근에는 직장인을 지칭하는 ‘직딩’이나 ‘주부’를 의미하는 ‘주딩’이란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인층을 의미하는 말로는 ‘노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 같지만, 속된 표현인 ‘노땅’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출처: 대중문화사전, 2009.)

초딩에 대한 생각

① 초딩 → 초등학생 또는 초등생 고0정

초등학생들에게 ‘초딩’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보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초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놀리는 느낌이 듭니다.

② 초딩 → 초등학생, 어린이 장0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있는데, 어떤 오빠들이 와서 “초딩 한 마리, 두 마리가 놀고있네.”라고 했습니다. 초딩이라는 표현도 기분이 나빴고, ‘마리’는 동물을 셀 때 세는 단위인데, 사람인 저와 제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니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 “어린이 두 사람이 있네.” 등으로 바꾸어서 듣고 싶습니다.

③ 정0린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초딩’은 좀 부족한 사람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④ 정0주

유딩, 초딩, 중딩, 고딩을 차별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대하는 느낌입니다.

어린이 존중을 위해 초딩 대신 사용해야하는 용어(표현)

초등학생, 어린이 등

• 00충 → 00의 정확한 표현

“급식충” 또는 “진지충” 00충은 무슨 뜻일까요?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부를 때, 벌레라는 뜻의 충(蟲) 자를 뒤에 붙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벌레에 빗대 극도의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는 접미사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충’이 접미사로 붙은 표현은 온라인상에서만 쓰이다가 일상생활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급식’이라는 단어를 붙여 ‘급식충’이라는 비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엄마들을 비하하는 ‘맘충’, 노인을 비하하는 ‘틀딱충’, 진지하다는 이유로 비아냥대는 표현인 ‘진지충’ 등 벌레를 뜻하는 ‘충’을 활용한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0충에 대한 생각

① 급식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김0연

대학생쯤 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급식충’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급식충’은 어린이를 벌레로 비유하며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급식을 먹는 시절의 학생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의 정확한 단어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② 정0영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급식충이냐?" 하는 소리를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설명충’, 밥을 많이 먹으면 ‘급식충’ 등 사람을 동물이나 벌레로 취급하는 단어 사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부정적 강도가 세다 보니 비하할 때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친구 간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존중을 위해 00충 대신 사용해야하는 용어(표현)

‘00’에 해당하는 정확한 표현 사용 (예: 급식충 → 급식을 먹는 학생)

• 군(君) / 양(嬢) → ‘~씨’ / ‘~님’

“00군, △△양!” 군(君)과 양(嬢)은 무슨 뜻일까요?

'군(君)'과 '양(嬢)'은 주로 친구나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00군, △△양과 같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조금 높여 부르거나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느껴지기도, 상황에 따라 낮잡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보니 성별과 나이, 특정 요인에 따라 일부 사람을 특정하여 사용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군'과 '양'의 한자어는 '임금 군(君)', '계집 양(嬢)'입니다.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른 한자 표현을 사용하다보니, 해당 호칭으로 불릴 때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과 '양'이라는 호칭이 탄생하고 자주 쓰이던 과거의 시절과는 다른 현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용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군(君)/양(嬢) 호칭에 대한 생각

1 이오철

여자 어린이나 청소년을 양(嬢)으로 존칭하고는 하는데 막상 한자사전에는 불편한 어감을 주는 계집 양(嬢)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전 편찬자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 전부를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존중을 위해 군(君)/양(嬢) 대신 사용해야하는 용어(표현)

‘~씨’, ‘~님’ 등

• 기타

①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래?” → “네 생각은 알겠어. 같이 다시 생각해 볼까?”

아동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면 안됩니다. 3살이 되면 아동들은 감정 분화가 시작되고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 감정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못할 뿐이지 성인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감정이 더 맞다고 하기 보다 부모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느낄 법한 감정에 대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현0목

이러한 표현은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배워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직 잘 못할 수 있어. 좀 도와줄까?" 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② “옆집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 “이것을 하는 게 어렵구나. 어떤 점이 어려워?”

사람마다 각자 고유의 목표와 생각이 있다. 비교는 삶의 좋은 기준이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독려하는 좋은 활력제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비교는 아동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 수 있고 열등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걸 인지하고 도와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지지와 응원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언론보도]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 아이를 비교하지 마세요(동아일보, 2017)

현0윤

사람마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다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OO 해!” → “OO 해보자” 또는 “OO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OO 해”와 같은 표현은 명령형 지시 언어로 상하가 분명한 관계에서 한 쪽이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는 일방적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명령 표현보다는 청유형 표현으로 “~해보자.”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동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정0영

숙제해, 공부해, 조용히 해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자주 듣는 말이고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동들이 명령형으로 표현할 때와 청유형으로 표현할 때, 둘 중 어느 말에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킬지를 고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보자”의 청유형 표현은 선택의 주체권이 아동에게 있어 아동이 스스로 수용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어른은 제안자, 아동은 선택권자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본 캠페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존중문화 만들기를 위한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 제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